

## ❖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 미래 전략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환경 변화의 중심에 있는 도서관은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크나큰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변화의 수용이 도서관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정보의 디지털화'라는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는 도서관들이 정보의 수집과 보존 및 전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도서관들의 롤 모델은 구글(Google)과 같은 종합 하이테크 서비스 기업이라는 주장도 있다. '디지털화'로 인해 그동안 도서관이 소장하고 서비스 해오던 도서 및 학술지는 이제는 대부분이 출판사나 정보유통기관이 콘텐츠를 점유하게 되었다. 지식의 공통으로 일컬어지는 구글 및 네이버 등의 포털도 전문 학술정보와 전자책까지 아우르는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고 있고 모든 정보유통기관들이 복합 지식콘텐츠 서비스를 지향하며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서비스 제공 주체의 다양화와 함께 그 동안 도서관의 강점으로 생각되어 왔던 자료의 분류, 목록, 참고서비스와 같은 전통적 기능은 메타데이터의 자동화, 시맨틱웹의 발전, 대규모 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더 이상 장점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해 그 동안 도서관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미래의 이용자는 더 이상 정보 이용에 있어 도서관을 게이트로 이용하지 않고 우회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제공 주체의 동향을 살피고 이에 따른 미래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제공 주체의 빅뱅

### 포털의 발전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와 야후, MS 등 주요 포털 사업자의 OCA(Open Content Alliance) 등 포털사업자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도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자책과 인터넷 포털의 만남으로 출판업계와 포털의 양 진영이 공생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하여 미래의 도서관 서비스에 큰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도 전문·학술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이버 전문정보의 경우 2012년 11월 20일 기준 학술자료, 동향연구보고서, 특허/KS표준, 통계, 리포트/서식, 국가기록물 등 총 2천4백만 건 이상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포털은 이제 초기의 단순 검색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콘텐츠 자체를 보유한 정보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거듭나고 있다. “도서관의 미래는 구글과 같은 하이테크 서비스 기업처럼 되는 것이며 도서관들도 작은 구글로서 특정 이용자층의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정보유통기관 및 출판사의 진화

최근 들어 국내·외 학술정보 유통기관들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술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술정보 유통기관의 하나인 엠스코(EBSCO)는 2011년 1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 제공사인 윌슨(H.W. Wilson)을 인수하여 주제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확장한 7개 주요 주제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출시하였다. 또한 스칼라스(Scholars)와 같은 다양한 전자정보 유통서비스 솔루션의 발전도 미래 도서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요소이다. 국내의 경우 누리미디어의 DBpia도 9개 분야, 1,774종의 간행물, 156만 건의 논문을 제공하며 통합검색과 인

터페이스 상의 다양한 기능 제공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보유통기관들은 새로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저널, 전자책(e-book), 오픈엑세스 자료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거대 미디어 회사인 베르텔스만(Bertelsmann)이 소유한 랜덤하우스와 피어슨(Pearson)이 소유한 펭귄 출판사(Penguin Publishing)가 금년 10월 합병을 완료했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출판사가 탄생한 것이다.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로 이름을 바꾼 이 거대 출판사는 세계 출판 시장에서 점유율 25% 이상을 담당하며 연간 매출은 3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펭귄랜덤하우스가 디지털 시장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전자책이나 디지털 출판 분야에서 아마존 등 온라인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출판업계는 규모의 경제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최대화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회사 규모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점도 도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업계의 본격적인 디지털화로 전자책 관련 데이터 수집이 활성화되면서, 독자의 도서 완독 여부, 특정 도서를 구매한 독자의 프로필 등 상세한 출판 데이터를 수집·분석 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전자책 분석 서비스 ‘Hiptype’은 전자책 독자의 모든 이용 행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출판사가 이를 활용해 타깃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판 업계가 디지털 출판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한 도서의 판매량을 넘어선 전자책 독자의 모든 이용행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 정보유통운동 - 오픈엑세스

오픈엑세스(Open Access, OA)는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학술정보유

통 패러다임으로 연구 성과물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제적 운동이며,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미래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최근 OA저널 관련 한 연구에서 지난 십 년 동안 OA저널 출판은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학술저널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연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출판되고 가장 포괄적인 기사 레벨로 색인된 166만개 논문기사의 약 17%가 저널 출판사를 통해 오픈액세스로 이용 가능하며, 그 중 대부분(12%)은 즉각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부(5%)는 출판 후 12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은 정부의 지원 하에 '오픈액세스 기반의 국가 리포지터리 구축 과제'를 2009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현재 기관 리포지터리(IR)가 21개이며 수록 콘텐츠 수는 270,156건이다.

#### 집단지성

인터넷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작성하는 무료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가 2001년 1월 온라인 사전으로 나와 지금은 방문자 수 세계 6위 웹사이트가 되었고 전 세계 280여개 언어로 작성된 2,100여만개 글이 제공되고 있다. 한국어 위키피디아는 2002년 10월 11일 문을 열어 지난 10년간 21만7천여개 항목을 만들었고 위키피디아에서 22번째로 규모가 큰 서비스로 성장했다. 급속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위키피디아는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의 확산으로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 있지만 "정보는 나눌 수록 커진다"는 위키피디아의 오픈 소스 정신은 꾸준히 명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도서관 미래 정보서비스 전략

타 종류의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도

서관 기능이 취약한 전문도서관의 경우 정보환경 변화에 더 직접적이며 강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전문도서관만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며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제 전문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정보를 보유하던 기능에서 정보의 생산으로, 보유한 정보의 단순 서비스에서 정보의 가공과 분석 기능으로 그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 전문도서관 몇 곳의 대표적인 정보서비스 사례를 통해 그 미래 전략을 살펴보자.

#### 자관 생산 기록물의 통합관리

대부분의 전문도서관은 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연구 산출물을 도서관이 주도하여 수집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그 수집범위를 넓혀 연구 중간 산출물까지 확대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 연구업적관리시스템(RIMS)을 통해 기관의 연구 성과 정보를 관리하고 외부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도 구성원들의 경험과 지식 전수의 필요성 때문에 연구기록물종합관리시스템(DDMS)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기록물의 통합관리 및 서비스 기능은 전문도서관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로 부상하고 있다.

#### 정보조사 서비스

도서관의 이용자 정보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기대는 커지는 반면 도서관 경영환경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중요성 및 유용성을 제고시키고자 소속기관의 주요 이슈나 연구동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전문도서관은 각 주제 분야를 가지는 특성이 있으며 주제전문사서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요구한다. 이용자와의 계속적인 교감을 통해 맞춤형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소속기관 전체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전문도서관의 가치는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경우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요구를 사업·과제 중심으로 파악하여 주제전문사서가 이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연구개발 밀착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에는 도서관 내 단순한 정보조사 제공 이상의 보다 높은 분석 기능이 가미된 새로운 정보서비스로서 특허조사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경우에도 연구윤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중복검증 서비스를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연구중심의 기관에서 연구결과의 중복방지 및 창의적 연구결과 도출에 도서관이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서비스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서 특허출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연구기획 단계에서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자료의 가공 및 분석

과학기술 분야 연구에서의 과학데이터와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의 원자료(raw data)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분석 서비스 제공 기능도 전문도서관의 미래 전략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미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에서는 일찌기 사회과학의 경험적 연구에 기반이 되는 원자료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에서 벗어나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기관 내부의 특성화된 자료(기관 발간물, 소장자료 및 구축 DB,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정보 요구를 조직화하여 정보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서관이 보유한 정보자료에 대한 적절한 가공 및 제공은 정보자료의 이용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 맺는말

필자는 앞에서 포털, 학술정보유통기관 및 거대 출판사, 오픈액세스, 집단지성 등 정보제공 주체의 빅뱅을 살피고 그에 따른 미래 전략으로 자판 생산 기록물의 통합관리, 정보조사 서비스, 정보자료의 가공 및 분석을 전문도서관에서의 정보서비스 미래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보서비스의 바탕에는 도서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도입이 필요하며,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서비스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지금은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 이외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정신이 그 어느 때 보다는도 필요한 시기이다. ☹

#### [참고문헌]

오정훈. 2012. 연구전문도서관의 콘텐츠 미래 전략.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지』, 4: 22-29

강소선 등. 2012. 『톡톡티는 도서관 정보서비스』. 대전 :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김경철. 2009.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도서관의 서비스 개발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0(1): 93-113

글 | 정진규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차장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이사  
한국사서교육원 강사  
chj@kocca.kr

